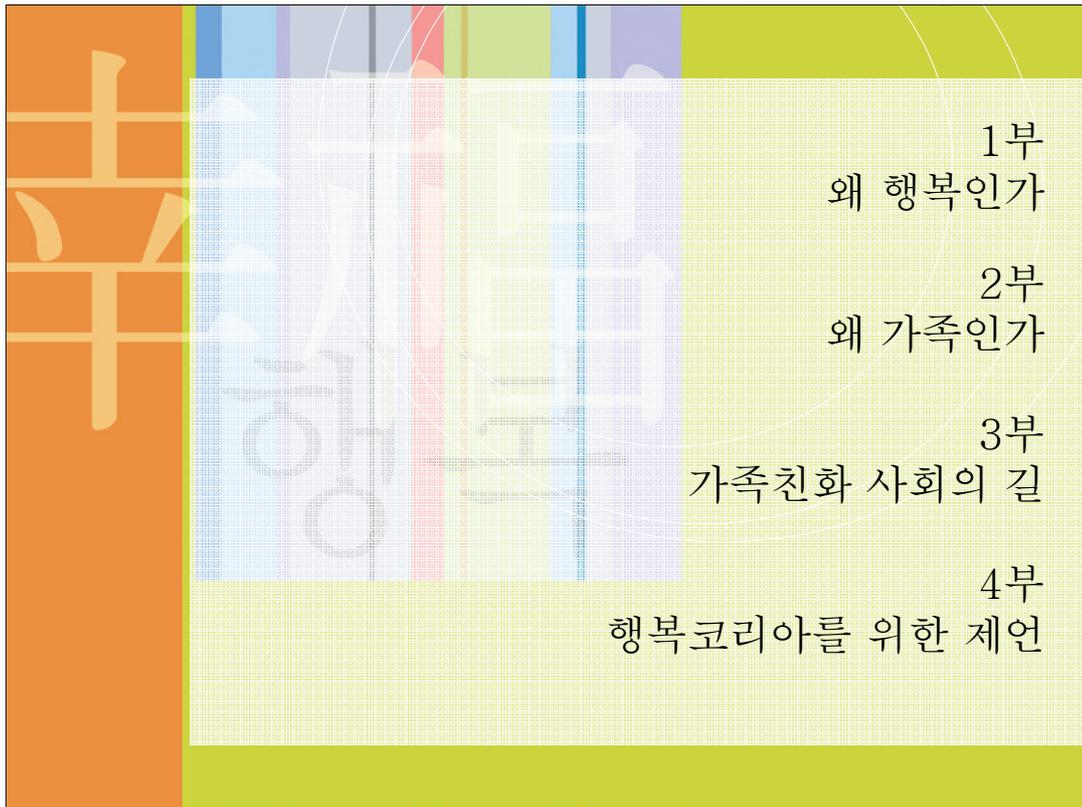


안녕하십니까. 김상협입니다.
오늘 4차 미래한국리포트 주제는 행복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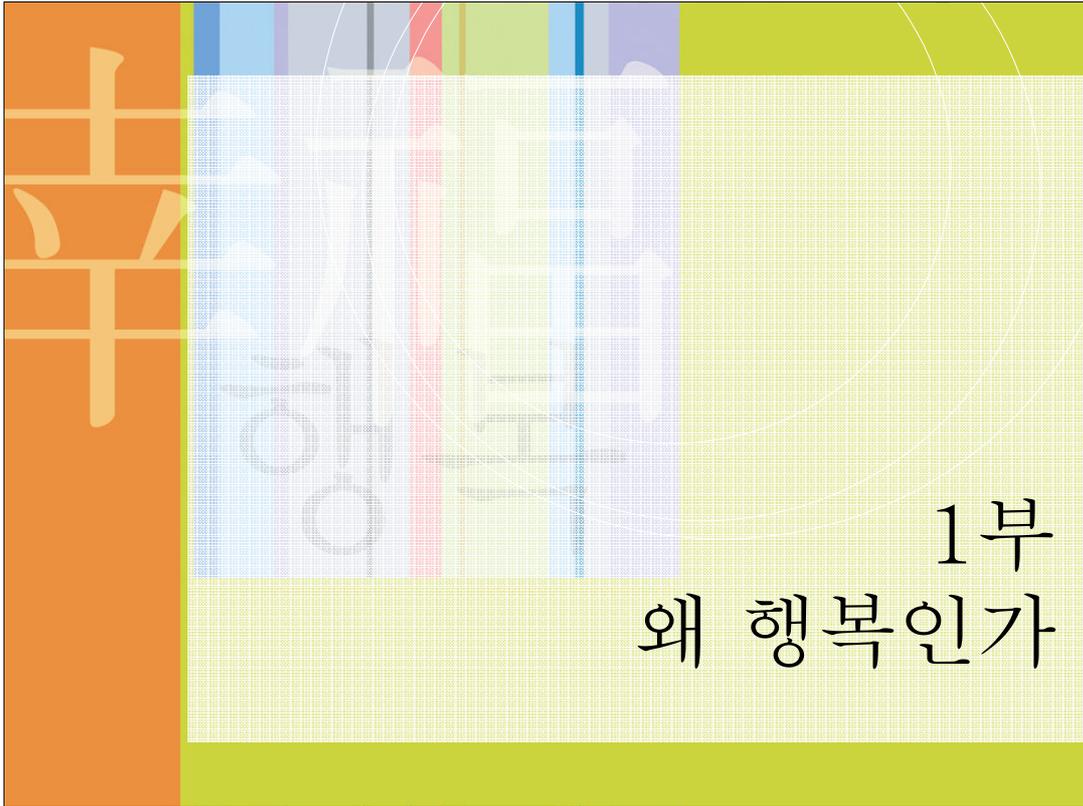
발표는 4부로 구성됩니다.

먼저 1부에서는 왜 행복인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왜 가족이 행복의 출발점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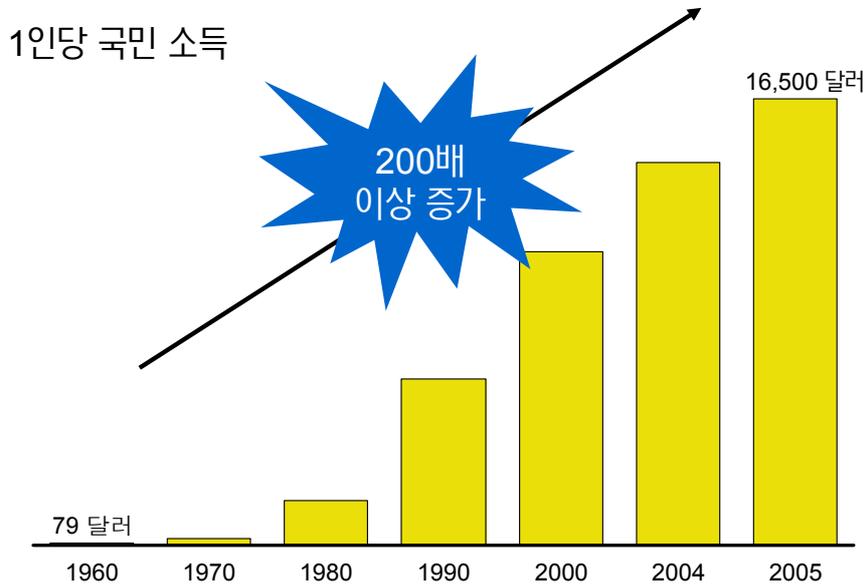
그리고 가족 친화적 사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부에서는 행복코리아를 향한 SBS의 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왜 행복인가를 살펴 보겠습니다.

40여 년 만에 국민소득 200배 증가



4

지난 40여 년 간 한국의 1인당 소득은 무려 200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환율 등을 감안할 때 2008년이면
대망의 2만 달러 돌파도 가능하리라는 게 정부의 전망입니다.

세계 10위권으로 커진 한국의 경제 규모

2004년 기준

국내 총 생산 (GDP)

나라명	단위 : 억달러	세계 순위
미국	117,350	1
일본	46,734	2
독일	27,406	3
영국	21,244	4
프랑스	20,466	5
인도	6,860	10
한국	6,810	11
멕시코	6,765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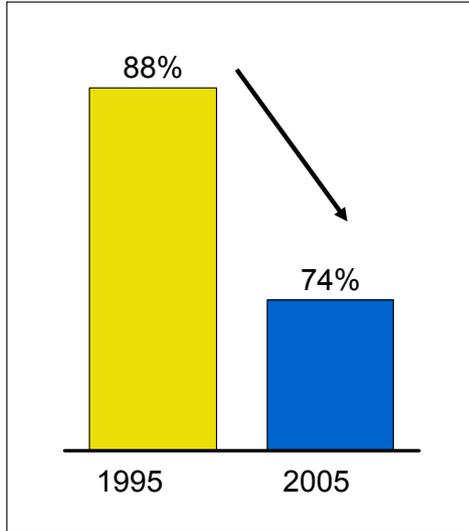


G-10 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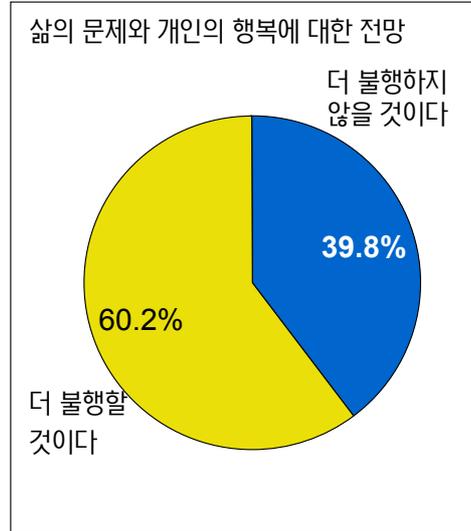
한국의 경제규모, 이제 세계 11위로 커졌습니다.
G-10 즉, 세계경제 10대 강국으로의 진입을 꿈꿀 정도입니다.

그런데 왜 행복은 추락하는가?

한국의 행복도



10년 뒤 삶의 질 전망



하지만 우리사회도 그 만큼 더 살만해졌을까요?

우리는 그만큼 더 행복해졌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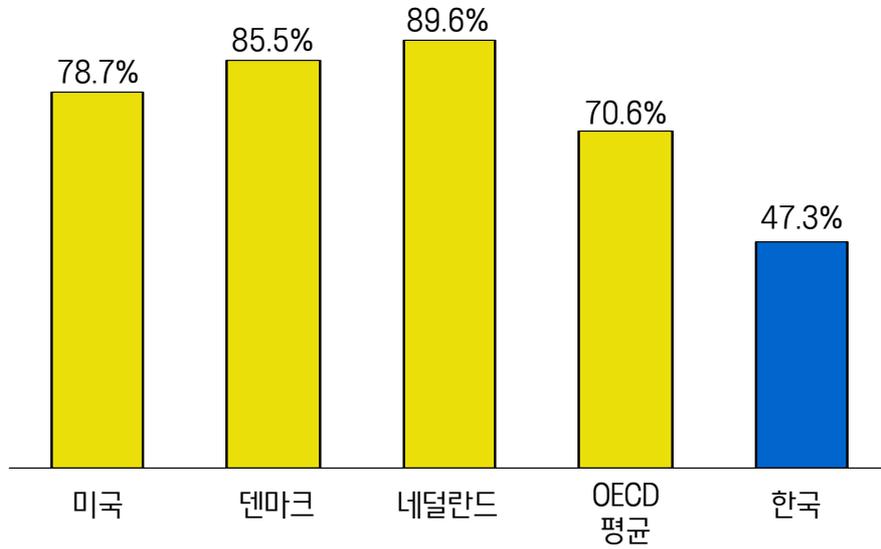
SBS가 한국갤럽과 실시한 서베이 결과를 보십시오.

한국인의 행복도는 10년 사이에 14% 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전망은 더욱 비관적입니다.

앞으로 더 불행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0%가 넘습니다.

삶의 만족도, OECD 절반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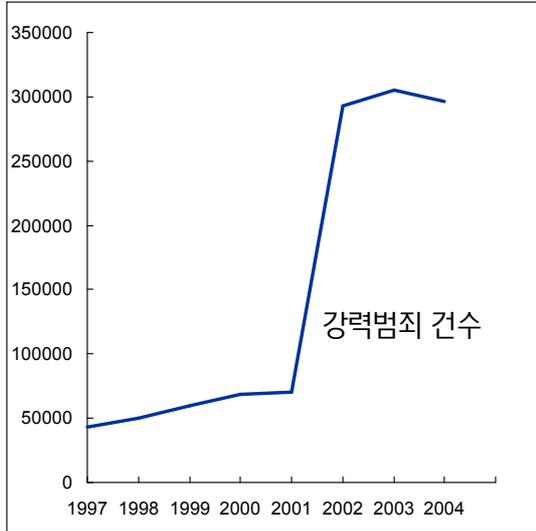


7

다른 조사 결과도 비슷합니다.
한국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입니다.

OECD 최고의 자살 증가율... 그 이유는?

강력범죄 발생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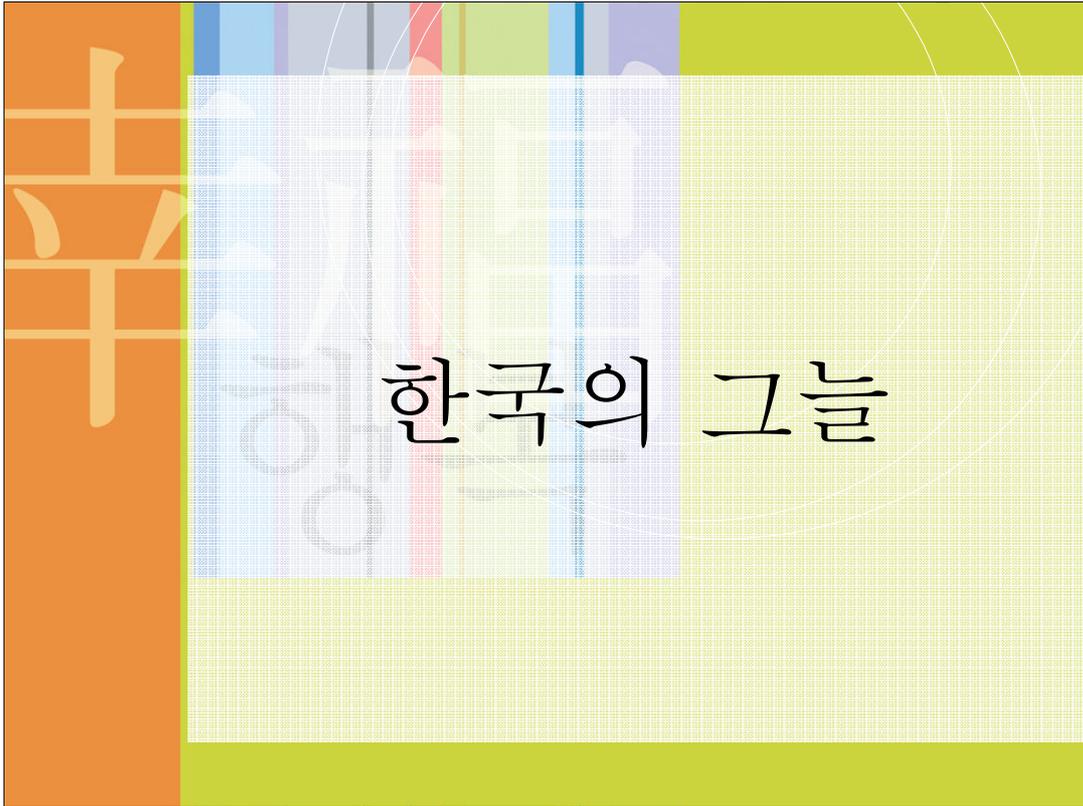


자살 증가율

나라명	순위	비율 (%)
한국	1	5.2
멕시코	2	3.9
아이슬랜드	3	3.5
일본	4	0.6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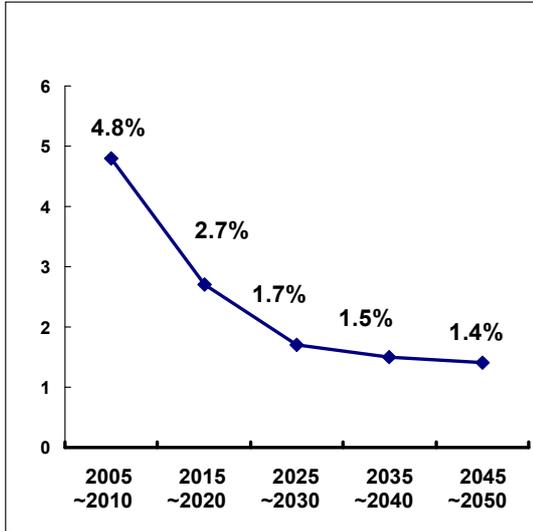
극단적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강력범죄와 자살증가율은 OECD 1위로 치솟았습니다.
 행복은 커녕,
 불행과 가까워지는 듯한 느낌마저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사회에 드리워진 깊은 그늘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저성장 - 저투자 고착화

실질 경제 성장률 예측



설비 투자 증가율

연평균, %, 1996-2004년

나라 명	설비투자 증가율
미국	4.8
영국	4.5
독일	4.1
일본	8.8
싱가포르	10.8
한국	3.2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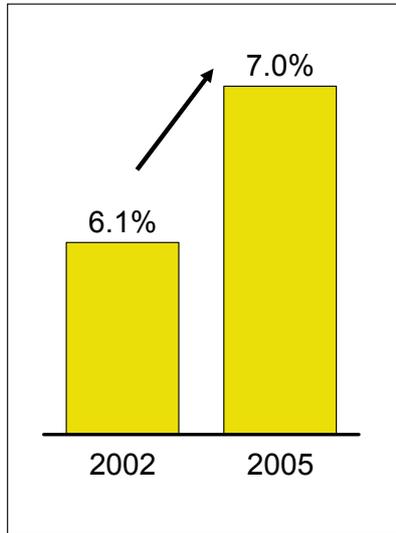
먼저 저성장의 그늘입니다.

지난 세월 잘못까지 덮을 수 있었던 고도성장의 엔진이 꺼지고
이제는 4%대 성장에 그치는 상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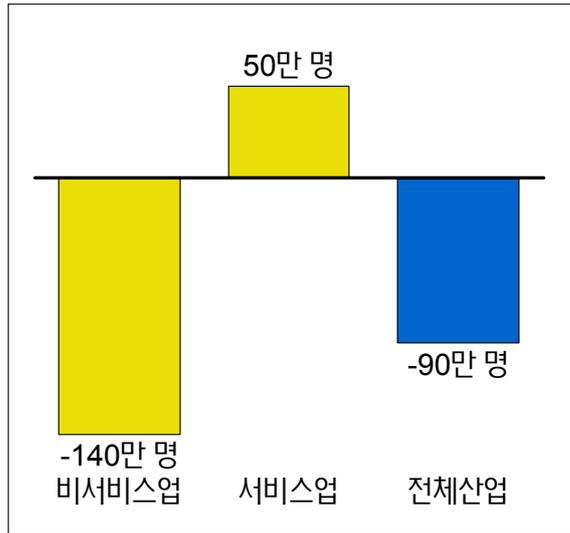
골드만 삭스는 2020년대부터 한국의 실질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2. 일자리 충격

체감 실업률 증가



2010년 까지 일자리 100만개 감소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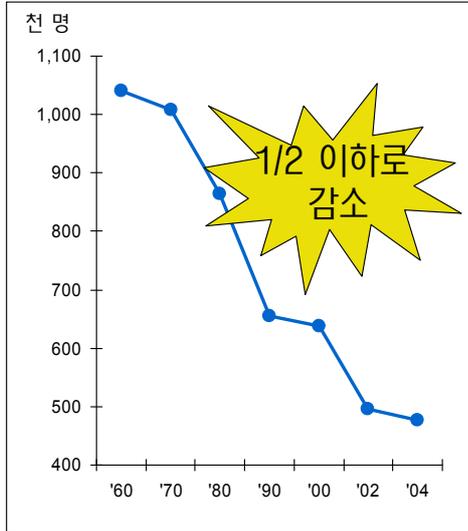
두 번째 그늘. 일자리충격입니다.

체감실업률, 5년 연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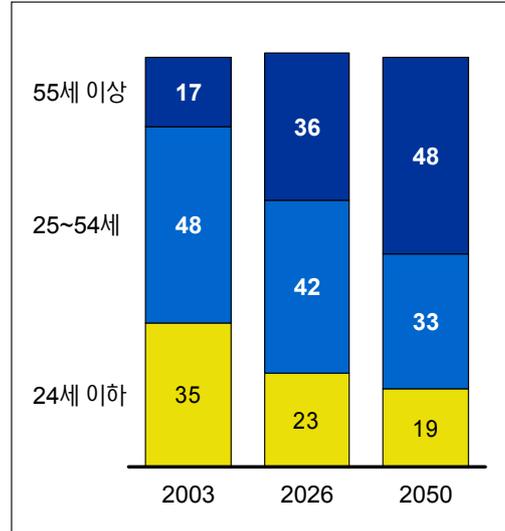
이대로라면 5년 뒤 백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3. 저출산 - 고령화 충격

출생아 수 감소



40여 년 후면 55세 이상이 인구 절반



12

세번째 그늘 저출산-고령화 충격입니다..

지난 40년 사이 이 땅에 태어나는 아이는 절반 이하로 줄어 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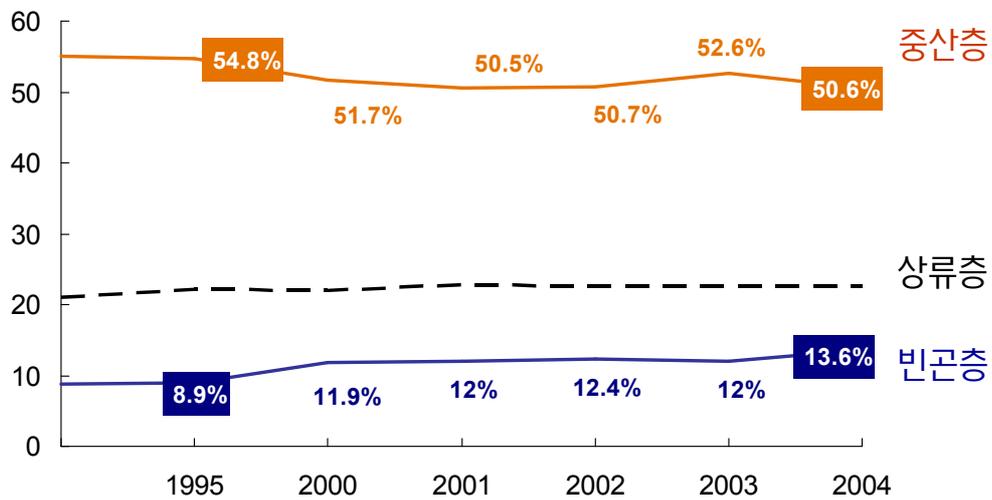
오는 2050년이면 5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료: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2005)

연령별 추계인구 (통계청, 2001); 맥킨지 분석

4. 양극화

10년 사이 빈곤층 5% 포인트 증가



13

네 번째, 양극화 그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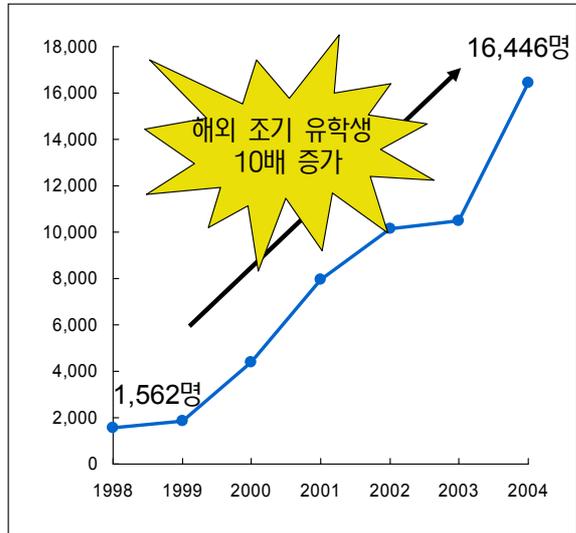
지난 10년 사이 중산층은 5% 포인트 가량 줄어든 대신 빈곤층은 5% 포인트가 늘어났습니다.

5. 교육 엑소더스

교육비 부담

순위	나라명	GDP 대비 %
1위	한국	3.4%
2위	미국	2.3%
5위	일본	1.2%
28위	핀란드	0.1%

초중고 조기 유학생의 증가



14

교육의 그늘도 깊어 갑니다.

세계최고의 교육비 부담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합니다.

특히 조기유학은 최근 6년 사이에 무려 10배가 급증,

한국을 교육 엑소더스 국가라 부를 정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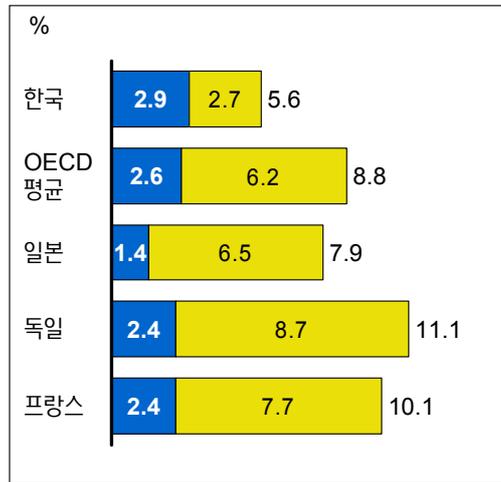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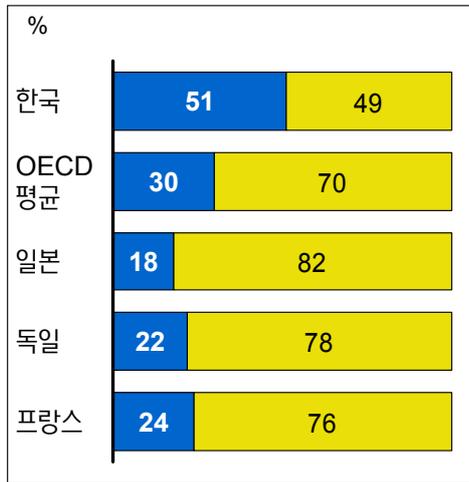
6. 의료까지 엑소더스

높은 의료비 부담 : 본인 부담률의 국제 비교

■ 공공부문 부담
■ 개인부담

총 의료비 중 본인부담

GDP 대비 본인부담 의료비 비율



15

의료에서도 엑소더스 현상이 나타납니다.

의료비 본인부담률은 OECD 평균의 두 배 가깝지만,
부실하고 획일적인 의료서비스로

한해 1만 명이 넘는 환자가 외국으로 나가는 실정입니다.

7. 환경의 역습

환경지속 능력 (ES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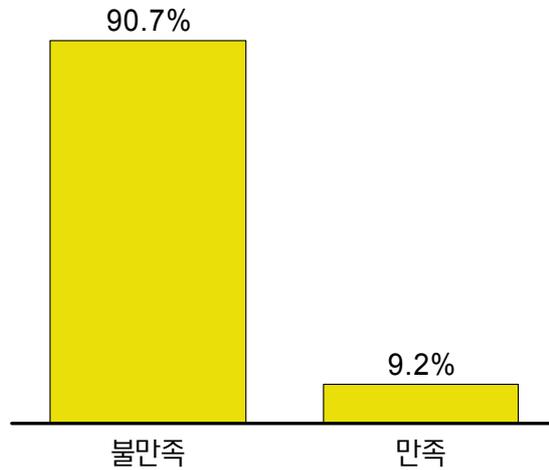
ESI 순위/146개국	나라명
1	핀란드
2	노르웨이
4	스웨덴
5	아이슬랜드
6	캐나다
30	일본
40	네덜란드
45	미국
...	...
122	한국
123	앙골라

16

환경의 역습이란 말까지 나올 만큼 환경문제도 심각합니다.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경제성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 결과
한국은 122위로 나타났습니다.

8. 외면받는 정치, 그들만의 리그

정치 지도자에 대한 만족도



17

마지막으로, 정치의 그늘입니다.

SBS와 한국갤럽의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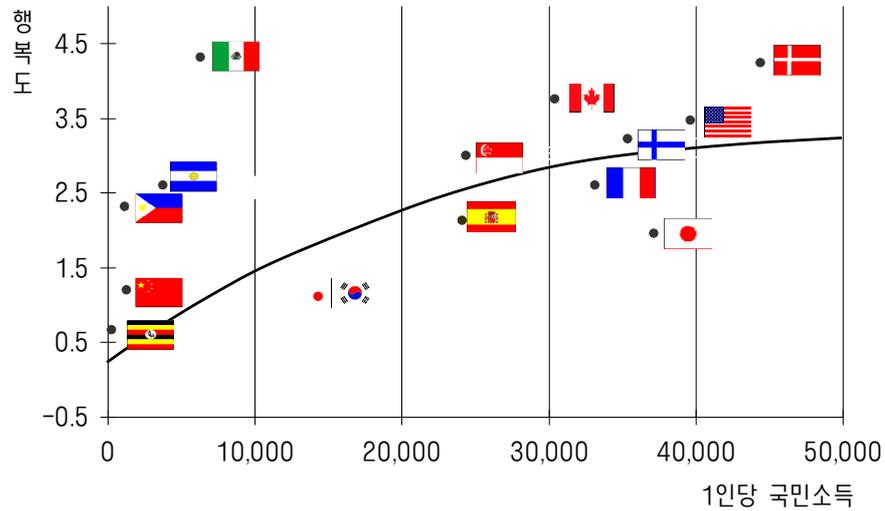
우리사회의 가장 큰 불만 요인으로 정치를 손꼽았습니다.

정치는 이제 자신의 행복과는 무관하다는 냉소적 반응이

40%에 이를 정도입니다.

1. 국가경영에 따라 달라지는 행복의 문턱

행복의 문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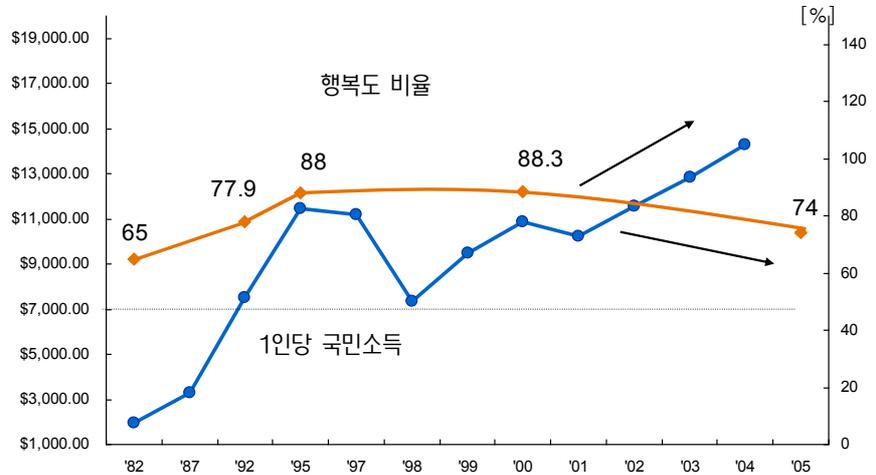


18

우리에게 드리워진 이 많은 그늘,
 경제만 살아나면 모두 걷히게 되는 걸까요?
 미시간대 잉글하트 교수팀의 연구결과를 보십시오.
 1인당 소득이 1만 달러에 달할 때까지는
 소득과 행복이 함께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그런 상관관계가 나라별로 달라집니다.
 일본의 경우 소득이 몇 배가 늘어도 행복도는 제자리 걸음을 합니다.
 그러나, 덴마크나 스웨덴 같은 나라는
 소득과 행복이 함께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국가경영에 따라 행복과 번영의 함수관계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2. 한국,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 필요

국민소득 대비 행복도



19

잉글하트 교수는 이를 행복의 문턱이라 부르며 한국에 바로 여기에 걸려있다고 진단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지요.

(인터뷰)

“행복의 시작은 경제입니다.

세로축은 행복의 진척도이고 가로축은 늘어나는 수입의 정도입니다.

행복도는 나라들이 부유해지면서 높아집니다.

하지만 특정지점이 되면 행복도는 정비례의 곡선에서 벗어납니다.

흥미로운 것은 한국이 바로

이 곡선이 벗어나는 지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지금 과도기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행복하게 해줬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무엇이 자신들을 행복하게 하는지를 고민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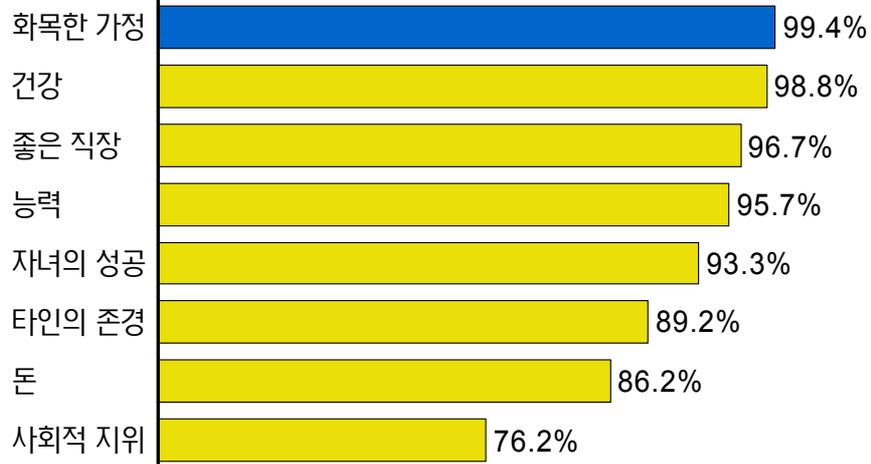
한국, 행복과 번영을 조화시킬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SBS는 새로운 출발의 실마리를 가족에서 찾고자 합니다.

행복의 제1 조건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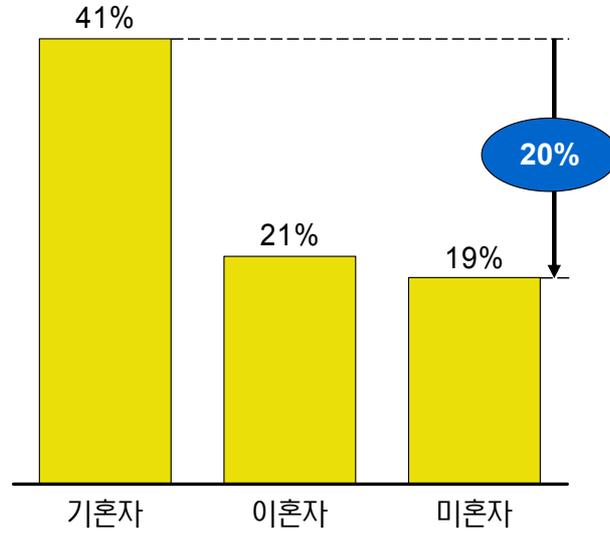
21

SBS의 조사 결과가 이를 보여줍니다.

응답자들은 화목한 가정을 행복의 최우선 조건으로 손꼽았습니다.

미국도 가족이 행복의 조건

행복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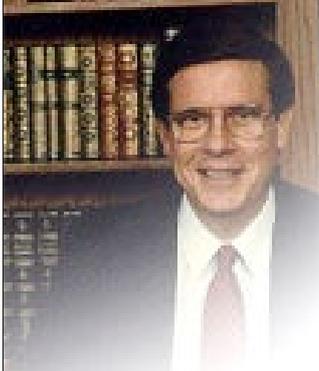
22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해서 가족을 꾸린 사람의 행복감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2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물질만으로는 충족할 수 없는 행복



Ed Diener
미 Illinois 대학
심리학 교수

‘매우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좋은 관계와
유대 ”

23

왜 가족이 행복의 제 1조건이 되고 있을까요.

‘행복학’의 세계적 석학 에드 디너 일리노이대 교수 얘기를 들어보시지요.

(인터뷰)

“행복한 사람은 가깝고 의지할 수 있는 가족과 친구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위해 너무 많이 희생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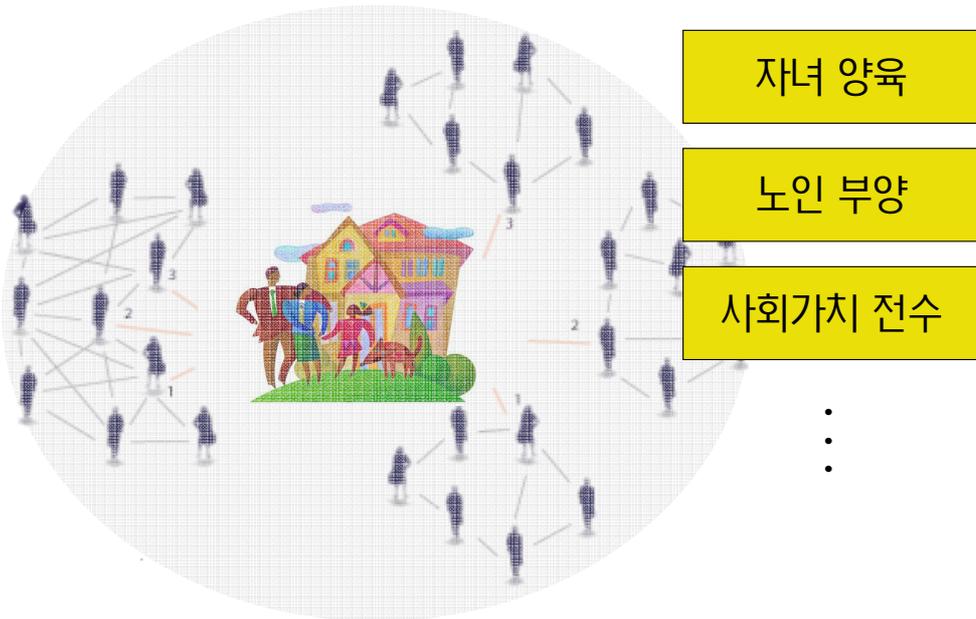
가족이나 가까운 관계를 포기할 정도로 항상 일하면서

그 결과 나는 이제 차가 생겼고,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고,

각종 물질적인 것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갖기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희생했습니다.”

가족은 나라의 자산



24

최근, 기러기 아빠의 사례에서 보듯
가족이 없는 삶, 관계와 유대가 상실된 삶은
행복과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입니다.
가족은 개인 뿐만 아니라 나라의 자산이기도 합니다.
가족은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이자
아이들이 만나는 최초의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또 자녀양육과 노인부양 같은 사회안전망의 역할도 합니다.
가족이 잘 되면 나라 경제도 나아지는 이유입니다.

위기의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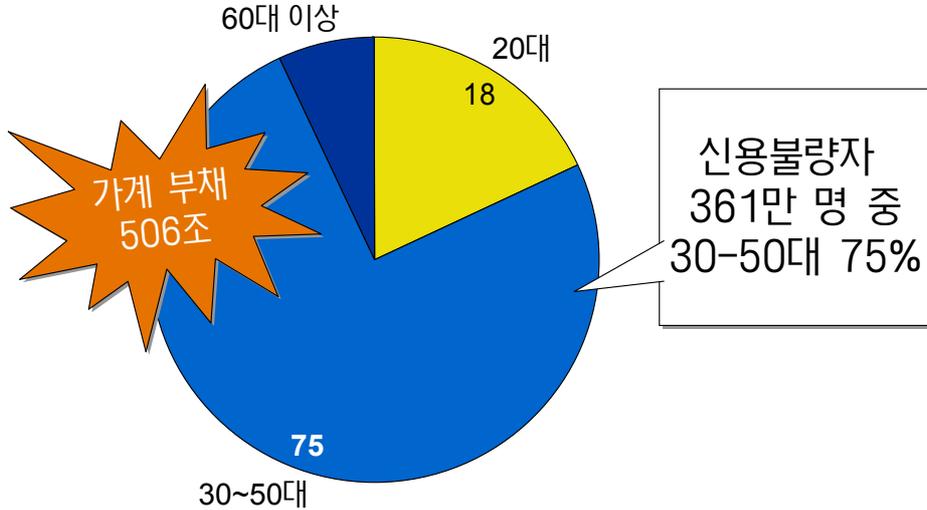
1. 무너지는 가정경제
2. 경제 문제로 인한 이혼율 급증
3. 버려지는 아이들
4. 갈 곳 없는 노인
5. 늘어만 가는 기러기 아빠
6. 출산기피 현상
7. 다양화 되는 가족, 변하지 않는 편견

25

하지만 이처럼 중요한 가족,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 무너지는 가정경제

연령별 신용불량자 비중



26

먼저 경제적인 측면부터 보겠습니다.

500조에 달하는 가계 부채가 많은 가족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특히 신용불량자 3명 중 2명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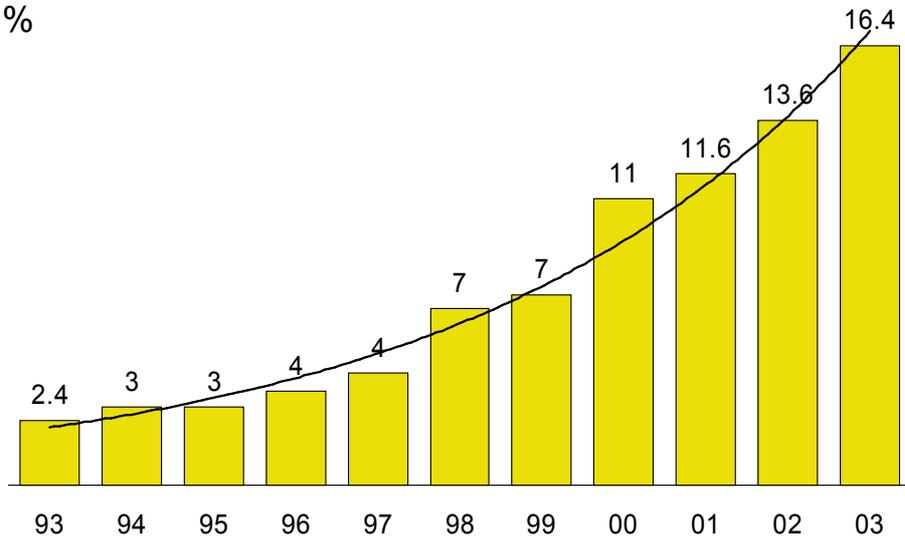
가계경제의 중추인 30에서 50대인 실정입니다.

자료: 신용불량자 대책 추진현황과 향후방향 (재정경제부, 2005년)
2005년 3/4분기 중 가계신용 동향 (한국은행, 2005년)
제2차 미래한국리포트 (SBS 미래부, 2005년)

2. 경제 문제로 인한 이혼율 급증

경제 문제로 인한 이혼율

%



27

경제문제로 인한 이혼율이

5년 사이에 두 배가 늘어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 전체가구 중 여성가장 비율은 18.5%
- 빈곤가구 중 여성가장비율은 45%
- 여성가장의 빈곤 위험률은 남성가구주 빈곤 위험률보다 3배 이상 높음 (빈곤문제 연구소)

자료: 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이혼편) (통계청, 2003년)

3. 버려지는 아이들

빈곤, 실직, 학대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4,256명

부모 이혼으로 시설에 맡겨지는
아이들 4,39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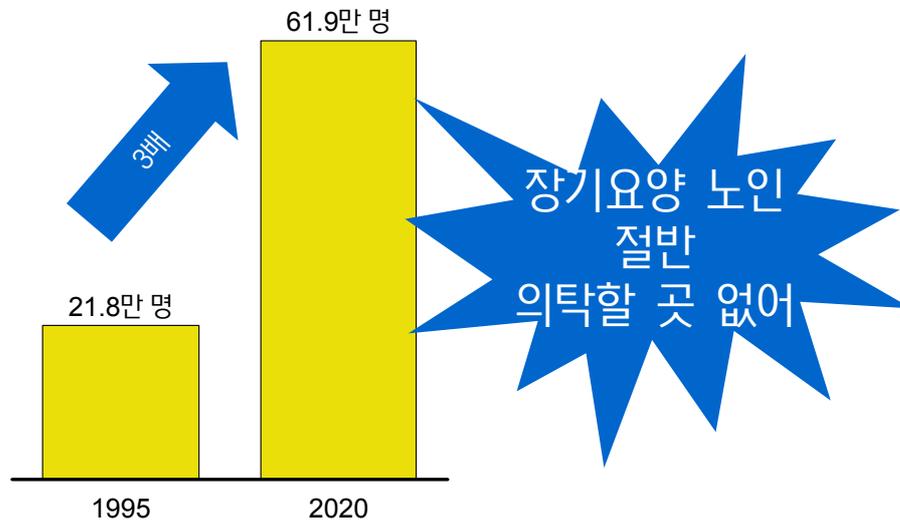
소년소녀 가장 약 3천500세대

28

버려지는 아이들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에 보호되는 아동 중
이혼으로 인한 경우가 4천명이 넘습니다.
실제로는 이 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정부도 인정합니다.
소년소녀 가장, 3천5백 세대가 넘습니다.
한국, OECD가입국이라 말하기조차 부끄럽습니다.

4. 갈 곳 없는 노인

치매 노인수



29

노인 분들 문제도 더욱 심각합니다.

가족위기 상황 속에서 치매, 중풍 등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 절반이 갈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치매 노인수의 경우,

2020년이면 지금보다 세배가 많은 62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우리의 준비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자료: 제1차 미래한국리포트 (SBS 미래부, 200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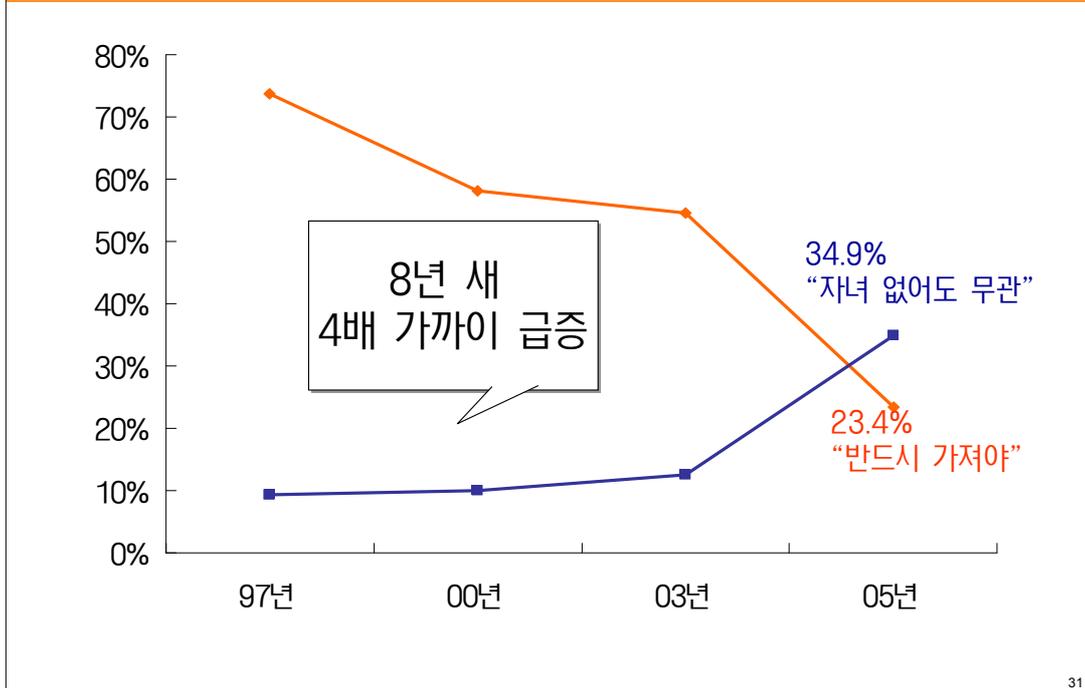
장래 치매 유병률 및 치매 노인수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2005)

5. 늘어만 가는 기러기 아빠

The image shows a newspaper clipping from 'Society' (사회) dated October 20, 2005. The headline reads '유학비 대느라 맥주병 된구는 월세방서 ... 5일간 모른 '기러기 아빠' 죽음' (Spent on tuition fees, the drunk father who became a beer addict died in a rental room for 5 days without anyone knowing). The article discusses the plight of 'Gull Dad' (기러기 아빠) - fathers who work abroad to support their children's education, often neglecting their families and themselves. A blue starburst graphic is overlaid on the clipping, containing the text: '기러기 아빠들의 우울증, 비관자살 등은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 (Depression, pessimism, and suicide among Gull Dads have become a serious social problem).

조기유학 열풍도 가족을 위협합니다.
 기러기 아빠가 2만 가구에서 5만 가구에 이른다는 추정 속에서
 우울한 소식들이 계속 들려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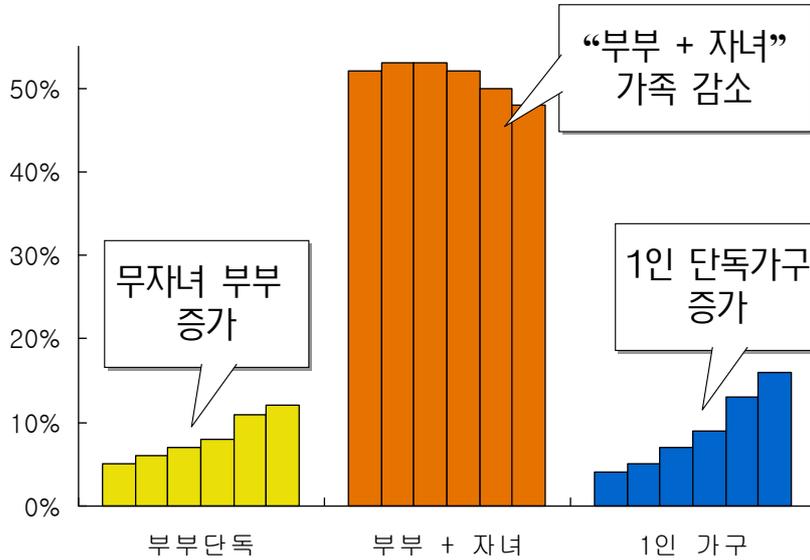
6. 출산기피 현상



무엇보다 가족에 대한 가장 큰 도전은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경향입니다.
한국, 세계 최저의 출산율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없어도 된다는 응답이 5년 전에 비해 3배 이상 늘었습니다.

7. 다양화 되는 가족, 변하지 않는 편견

가족형태의 추이 (1975년-2000년)



32

이런 가운데 가족형태 변하고 있습니다.
 부부와 그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 비율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면 한부모가족, 부부가족, 1인 가구 등
 이른바 비정형 가구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가족형태가 다양화되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은 그다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큰 상처를 받는 것은 바로 아이입니다.
 한 아이의 독백을 들어보시지요.

<영상물 상영 : 홈페이지 참조>

<http://future.sbs.co.kr>

자료설명

부부와 그 자녀로 구성된 2세대 핵가족 비율이 점차 감소.
 (85 : 52.8% → '00: 48.2%)
 무자녀 가족의 증가 추세. (75 : 4.8% → 00 : 12.3%)
 1인 단독가구의 급증세 (90 : 6.9% → 00 : 15.5%)
 한부모가족, 1인가족 등의 비정형 가족 비율 증가세
 (75 : 18.8% → 00 : 24.7%)

자료 :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통계청, 1975년-2000년)



이 아이는 앞으로 어떤 미래를 살게 될까요.

한쪽에서는 가족이 모래알처럼 해체될 것이라 내다보고,
다른 한쪽에선 가족이 지금보다 강화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떤 변화를 겪고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앨런 칼슨 세계가족회의 의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Mr. Carlson, please.

<연설 : 앨런 칼슨 세계가족회의 회장 : 홈페이지 참조>

<http://future.sbs.co.kr>



서두원입니다.

이제 가족친화사회를 위한 방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족에 대한 4가지 오해와 진실

피를 나뉘어야만 가족이다

부부는 역할이 다르다

자식은 나의 노후 대비다

양육과 부양은 가족의 책임이다

35

앞서 보시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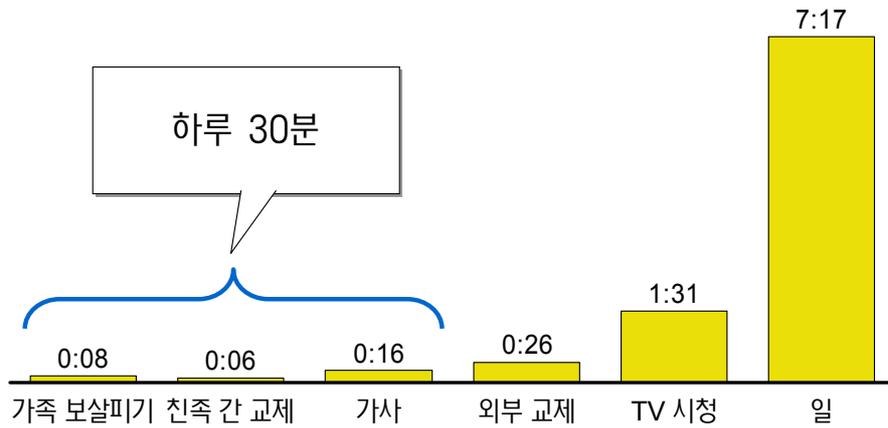
가족은 행복한 개인과 사회를 향한 출발점이지만
여러 가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가족에 대한 몇 가지 오해부터 직시해야 합니다.

오해1 : 피를 나눠야만 가족이다

20세 이상 취업 남성의 주요 생활 시간



36

사전적 정의를 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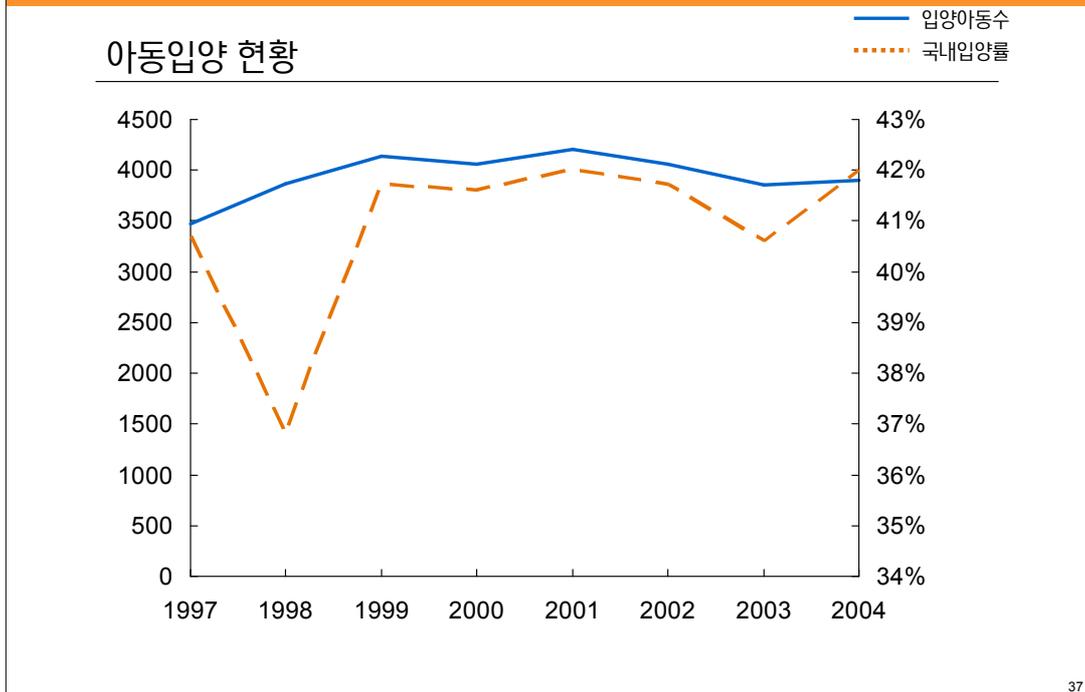
가족은 혈연과 혼인 관계로 한집안을 이룬 집단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하루에 30분도 대화하지 않는 가족이

많은 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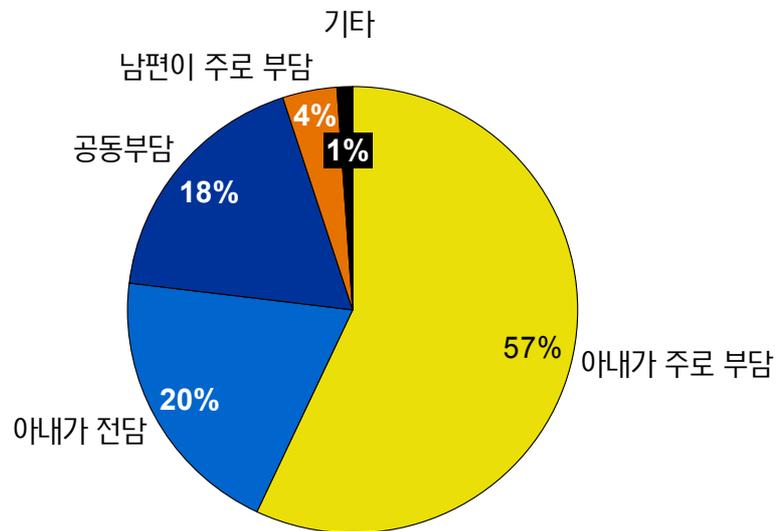
진실1 : 가족의 본질은 관계와 유대다



가족의 또 다른 정의는
정서적 유대감으로 맺어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피를 나누지 않은 공동체 가족 등
이른바 비정형 가족을 포용할 수 있습니다.
대화 없는 혈연보다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유대감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입양가족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오해2 : 부부유별

맞벌이 부부 가사분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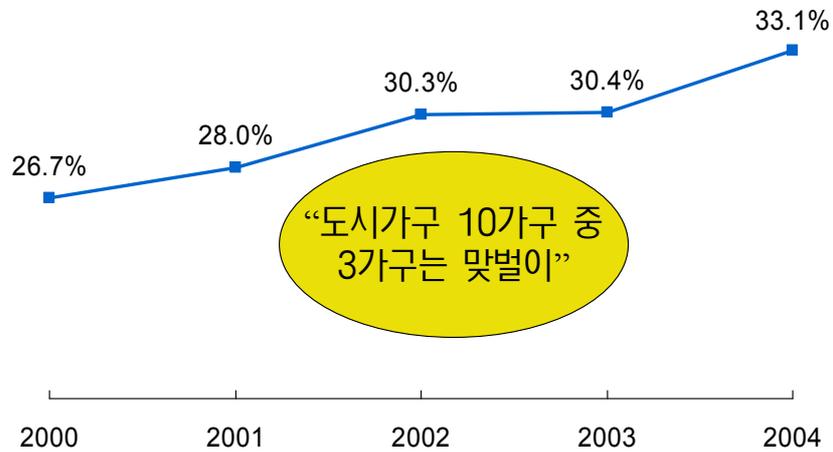


38

부부유별이라는 말 우리에게겐 뿌리가 깊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맞벌이 부부 가운데
여성의 가사 부담율은 80%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진실2 : 부부는 일과 가사의 공동 파트너다

맞벌이 가구 비율



39

하지만 이제 도시가구 10가구 중 3가구가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남녀 구별 없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요즘,
부부는 유별한 것이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입니다..

자료 상세 설명: 부부동거가구 중 도시맞벌이 가구 7,500세대를 대상으로 조사 함.
자료: 통계청 가계조사 (통계청, 각 년도); SBS 재구성

오해3 : 자식은 나의 노후 대비다

“자녀 1명
대학졸업까지 비용
2억1,905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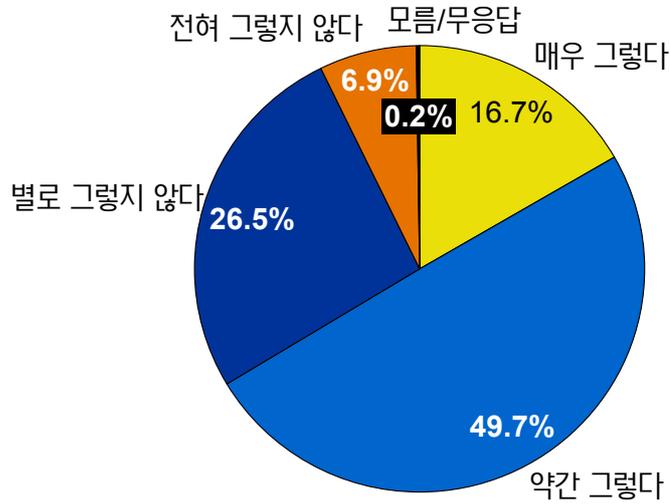


우리 부모님들, 자식 뒷바라지에 온 정성을 들이고 있습니다.
자식 1명을 대학까지 졸업 시키는데
평균 2억원 이상이 든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과연 노후대비가 될까요?

진실3 : 노후는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

노부모 부양은 불행의 원인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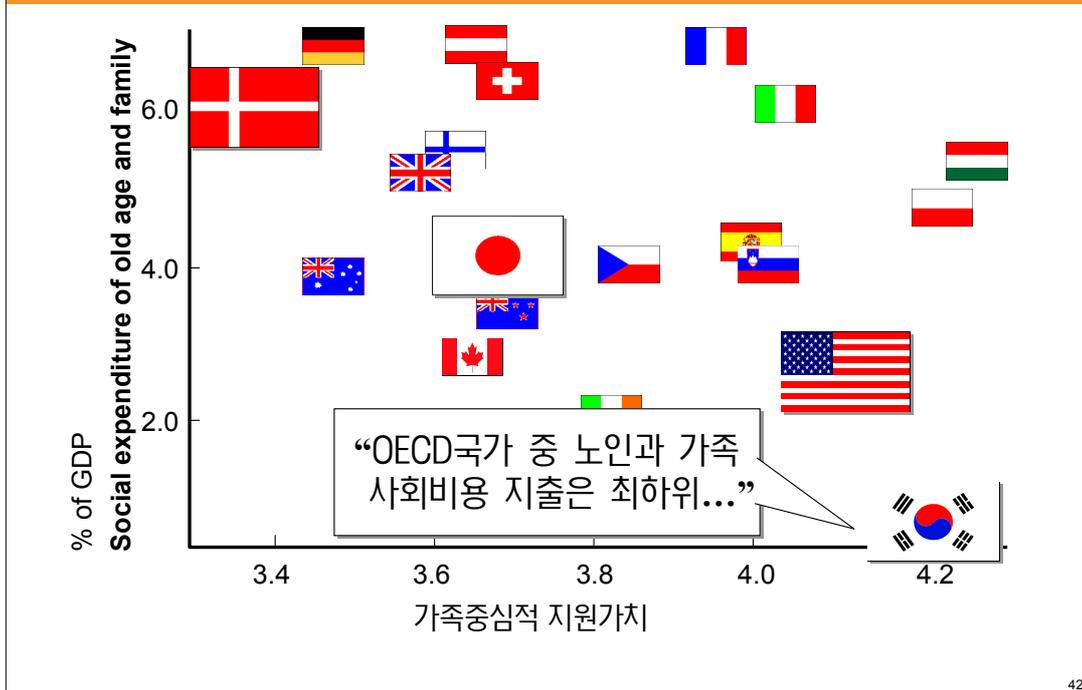
SBS - 갤럽 조사



41

SBS와 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노부모를 모시는 것이 불행의 원인일 수 있다는 응답이
66%가 넘었습니다.
서글픈 일이지만 노후에 기댈 언덕은
자식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라는 것이 현실적일지 모릅니다.

오해4 : 양육과 부양은 가족의 책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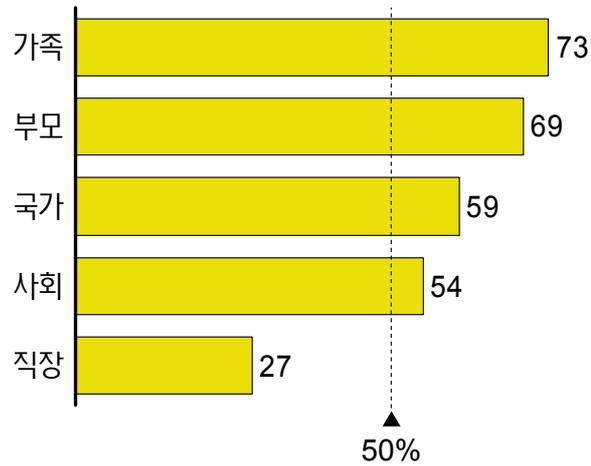


가족 일은 가족만의 책임이란 생각이 아직도 지배적입니다.
 직장인의 70% 이상이 어린 아이 키우는 일을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노부모 부양과 수발도 대부분 가족의 책임입니다.
 한국은 사회가 지출하는 가족 관련 비용이
 OECD국가 가운데 최하위입니다.

자료: Social Expenditure Database (OECD, 2001);
 'Social Relation and Social support' 통계(ISSP,2001);
 KGSS 통계(2004)

진실4 : 가족, 사회도 책임져야 한다

자녀 양육 책임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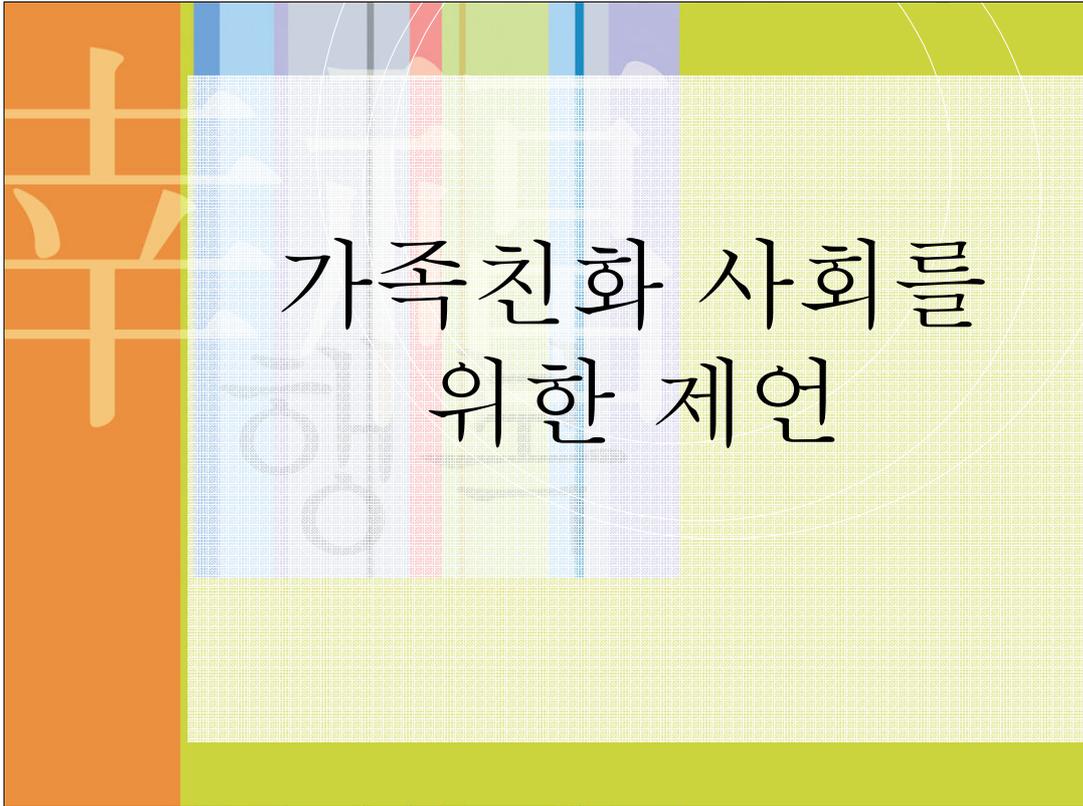


43

그러나 이제는 자녀 양육 책임이
사회와 국가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50%를 넘습니다.
노부모 수발 역시 가족과 사회가
책임을 나눠야 한다는 응답이 50%가 넘습니다,

(조성남, 고령화, 정보화 시대의 신호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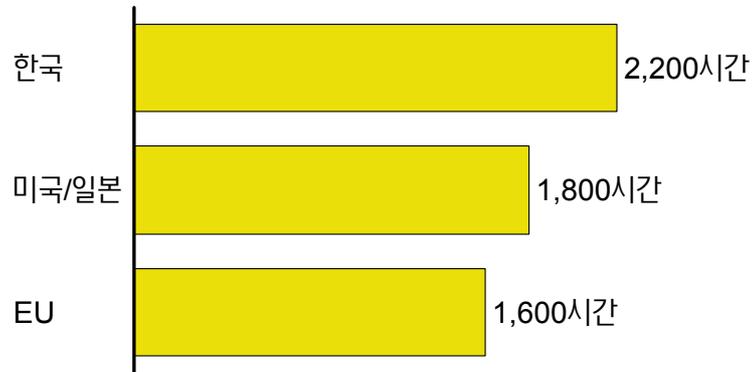
자료 상세 설명: 기혼자 337명을 대상으로 함 (중복응답).
가족과 행복에 대한 의식조사 (SBS-듀오 공동조사, 2006)
조성남, 고령화, 정보화 시대의 신호문화



이런 인식전환을 바탕으로
SBS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언1 : 생산성 향상으로 가족과의 시간부터 늘려라

1인당 연평균 근로시간 한국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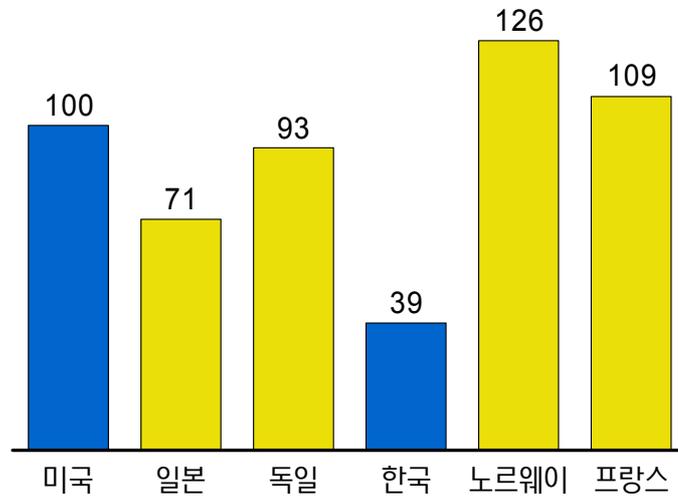


45

첫번째 제언,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지금보다 두배 이상 늘리기 바랍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국 특유의 비생산적 '과로문화' 때문입니다.
OECD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연평균 근무시간은 2200시간으로
미국,일본을 제치고 단연 세계 최고입니다.

노동생산성 미국의 39%

OECD 국가별 노동생산성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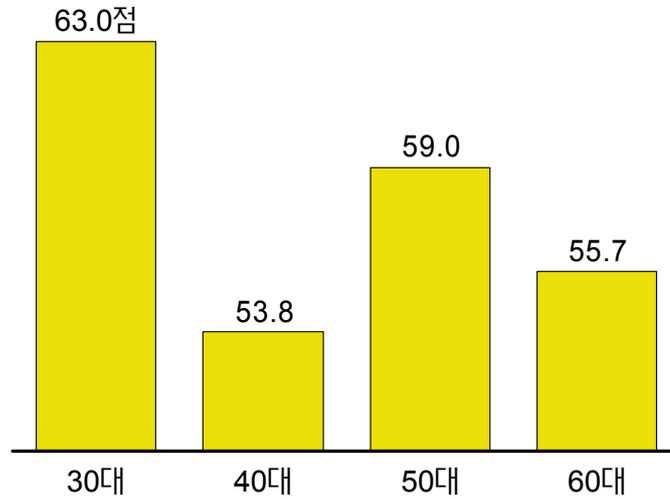


46

하지만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39%에 불과합니다. 생산성을 높이면 불필요한 과로에서 벗어나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 자기 계발 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제언2 : 아버지의 가족 역할을 강화하라

한국 남성 자립지수 (Independence Quotient)



47

한국 아버지들, 혼자서 얼마나 가사일을 할 수 있는지를 보는 가사자립 성적표가 낙제점에 가깝습니다.

아버지들의 가족 내 역할확대가 시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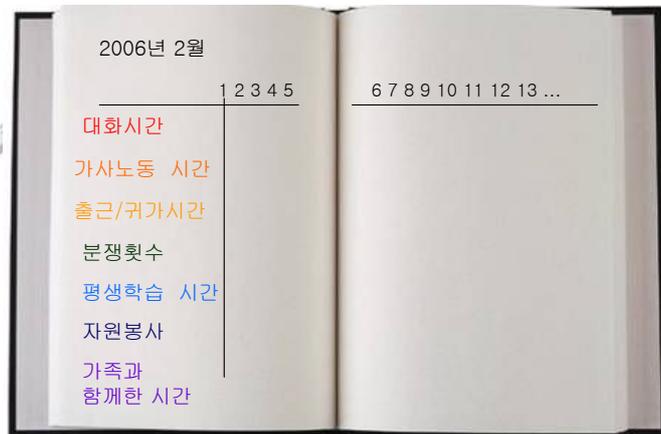
미국에서는 “가정에 충실한 남자가 직장에서도 성공한다”는 ‘아버지 운동(Fatherhood Initiative)’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언3 : 가족경영부를 써라

기존 가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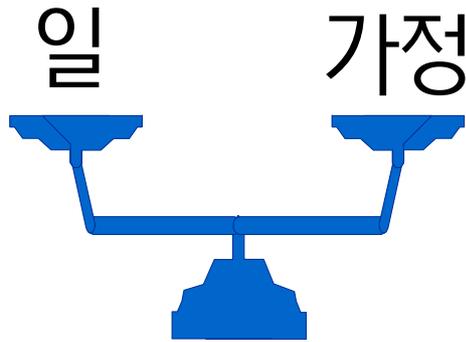
행복가정 경영부



48

기업이 경영목표를 설정하듯이
 가족 역시 고유의 비전과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수입지출만 기록하는 가계부가 아니라
 가족 모두가 가사참여시간, 대화 시간, 분쟁횟수 등을 점검하는
 행복가정 경영부를 작성하십시오.

제언4 : 기업, 가족친화 경영을 투자로 인식하라



출산과 육아 지원

탄력근무제

재택근무제

평생학습 지원

양성평등 고용

49

개인만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의 뒷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직장과 가정이 조화, 병행되도록
탄력적 근무시간제를 도입하고,
출산과 육아, 가족 상담역까지,
가족친화 경영을 도입해야 합니다.
세계 최강의 경제대국, 미국의 사례를 취재했습니다.

<영상물 상영 : 홈페이지 참조>

<http://future.sbs.co.kr>

제언5 : 지역 돌봄 공동체를 확장된 가족으로

품앗이 활동 사례

대전 한발레츠	안산 고잔 품앗이	과천 품앗이	대전시 복지만두레
- 품앗이 만찬, 육아 소모임 등	- 가사, 건강, 육아 품앗이 등	- 공동육아, 학습 품앗이 등	- 주민참여형 동 단위 밀착 복지 -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세대 위한 청소, 빨래, 밀반찬 등의 가사도우미 활동 등

50

지역공동체가 가족문제의 상당 부분을 끌어안는
확장된 가족의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 곳곳에서 희망이 발견됩니다.
이 같은 공동체 활동이 활발한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영상물 상영 : 홈페이지 참조>

<http://future.sbs.co.kr>

제언6 : 정부, 가족통계부터 제대로 내라

호주 가족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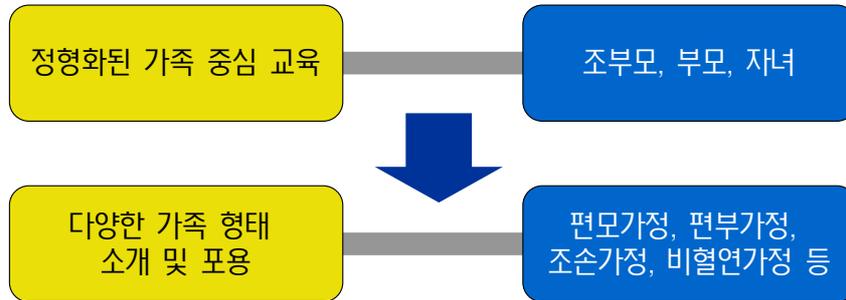
- 17세 이하 자녀 가정에 초점을 두고 조사
- 의붓가족, 사실혼, 부양의 주체/소득 수준, 친부모 만남 횟수 등 세밀 조사



51

국민행복의 기초인 가족정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심도 있는 가족통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호주는 아예 가족통계국을 설치해
세밀한 가족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인구센서스의 상당 부문에 성별 통계조차 없습니다.
여기 나와계신 통계청장님 말씀
잠시 후에 꼭 들어보겠습니다.

제언7 : 가족편견 심는 교육을 바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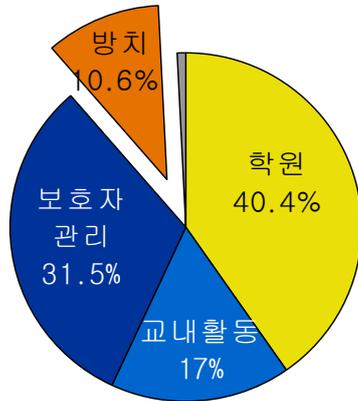


52

교과서에 실린 가족은
 부모와 자식 같은 정형화된 가족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이루는 일,
 교육에서부터 이뤄져야 합니다.

제언8 : 아동을 정책의 중심에 뒀라

저소득층 초등학생 방과 후 실태



- 저소득층 자녀에 무료 방과후 프로그램
- 이혼/재혼 자녀 상담 지원
- 아동 폭력/학대 예방 프로그램 개발
- 소년소녀 가장 '결연' 지원

53

아동의 입장에서 본 정책이 아쉽습니다.

빈곤층 가정의 초등학생 10%가 방과후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 마련이 절실합니다.

무엇이 정상적인 가족이냐는 시각보다 어떤 형태의 가족이든

아동이 적절한 돌봄을 받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미국 당국자의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웨이드 혼 박사 / 미 보건복지부 아동가족과 차관보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아동의 관점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아동은 어떤 형태의 가족에든 속해 있습니다.

두 부모가 다 있는 아이도 있고, 편부모 가정도 있고,

동거하지만 결혼하지 않은 부모를 둔 가정에 속한 아이도 있고,

조부모가 키우는 아이도 있고, 입양된 아이도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중요한 것은 그 가정이 최대한 강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너는 보다 나은,

다른 가정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그 아이가 속한 가정에서 그것이 어떤 가정이든 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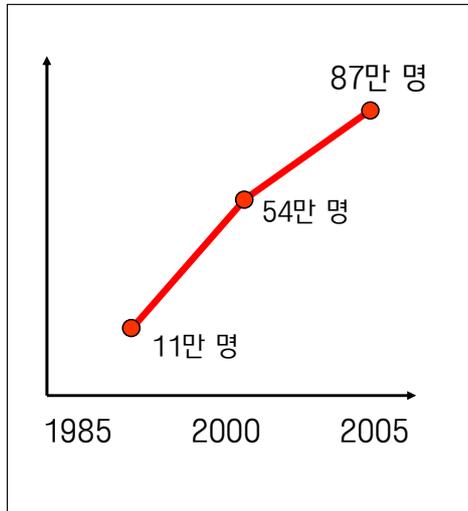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료 상세 설명: 초등학교 이하 아동 6,4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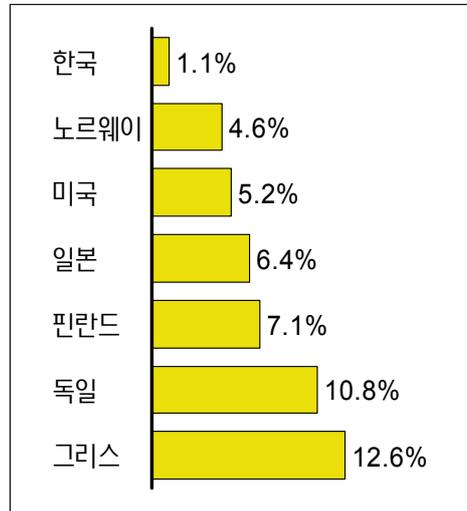
자료: 전국보육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05)

제언9 : 국가도 이제 효도하라

독거노인 수



GDP 대비 노인복지 비용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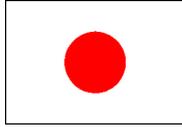
54

지난 20년 동안 독거노인은 무려 여덟 배나 늘어 백만에 육박합니다. 그러나 지금껏 노인 부양은 가족이나 노인 스스로의 짐이었습니다. OECD국가 가운데 한국의 노인비용 지출은 GDP대비 1%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습니다. 이제 국가가 효도할 차례입니다.

자료: 독거노인=65세 이상 1인 가구 (통계청, 각 년도); SBS 재구성

Public social expenditure: Cash transfer by main category (OECD, 2001)

제언10 : 가족친화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하라



일본

가족친화 기업
인증마크제 도입
(2004년 4월)



호주

National
Work & Family Award



싱가포르

WoW! Fund
(Work-Life Works! Fund)

55

선진국들은 이미 가족친화 기업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2004년
가족친화 기업의 제품에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호주와 싱가포르도 가족친화 기업을 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언10 : 가족친화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하라

가족친화 기업 인증마크 부여

세제 감면 및 금융 혜택

출산 ·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비용 지원

보육시설 건립, 가족간호 비용 지원

56

우리 정부도 가족친화 경영방식을 독려하고,
세제감면이나 금융혜택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때가 되었습니다.



가족친화적인 사회를 향한 길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보다 종합적인 행복국가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선진국, “웰빙 국가” 만들기 경쟁



캐나다

캐나다 웰빙지표
(CIW, Canadian Index of Wellbe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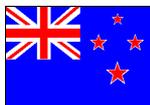
EU

유럽 구조지표
(European Structural Indicators)



영국

지속가능 발전지표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뉴질랜드

성장혁신 체제
(GIF, Growth and Innovation Framework)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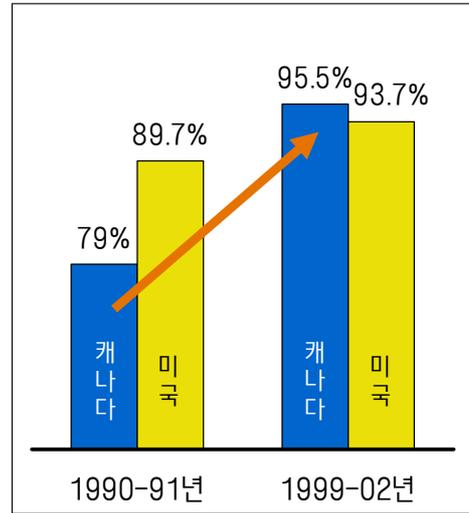
캐나다, EU, 영국 등 많은 선진국들은
일찍이 ‘웰빙국가’를 국정목표로 삼고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행복정책 수립에 나서고 있습니다.

캐나다, 소득은 미국보다 낮아도 행복은 높아

1인당 GDP (200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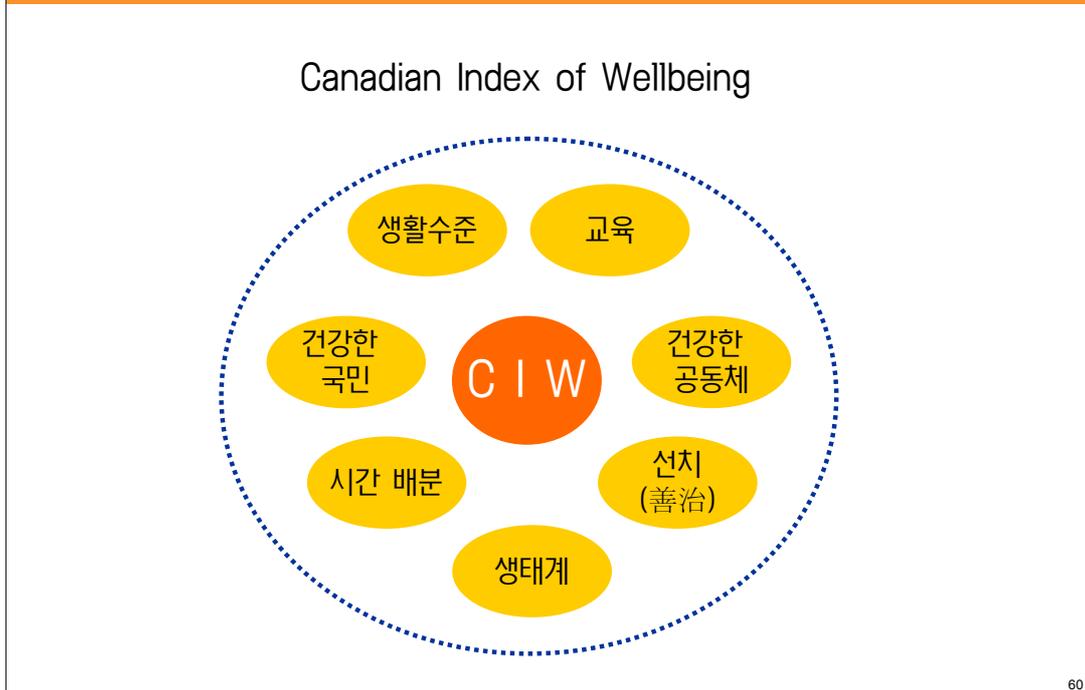
행복한 사람의 비율



59

특히 캐나다 정부의 노력이 눈에 띕니다.
 캐나다의 1인당 GDP는 미국에 비해 적지만,
 행복한 국민의 비율은 미국을 앞질렀습니다.

‘웰빙지표’ 개발로 행복관리에 나선 캐나다



캐나다 정부는 7년 전부터 막대한 돈을 들여,
 ‘웰빙지표’를 개발 중입니다.
 생활수준, 건강, 교육 등 행복을 좌우하는 요소
 7가지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CIW = Canadian Index of Wellbeing = “건강한 경제 (health economy) ”
 파트너십 (각 지표책임자간, 정부, 학계, 자치단체) 을 바탕으로
 7개의 행복영역 (CIW Domain) 을 개발 중.
 각 영역은 변화를 모니터하고 정기적으로 변화를 발표할 수 있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종합지표를 만듦.

<7개 행복영역 결정요소 및 중요 체크사항>

- 1) Living Standard : 경제성장률, 실업률 ,안전하고 의미 있는 고용,
 적절한 소득, 빈부격차, 안전한 음식, 살만한 집, 생필품 구입비
- 2) Health Population : 육체적, 정신적 건강. 흡연, 약물사용, 운동정도,
 의료보장, 출산율, 질병율, 암 발생률, 당뇨병, 자살률, 기대수명
- 3) Time Allocation : 여유시간, 일의 정도, 스트레스 정도
 (현재 1,2,3 통합 작업 중. 빠르면 2006년 상반기 중 종합지수 발표)
- 4) Ecosystem : 공기정화도, 물의 질, 숲, 토양, 바다 등 환경척도
- 5) Educated Populace : 문맹률, 교육의 질과 참가율 등
- 6) Community Vitality : 지역안전정도, 협력정도, 정체성,
 문화예술과 레크리에이션
- 7) Good Governance : 정부정책의 신뢰도, 투명성

#OECD 국민행복지수 개발...장기적 번영의 토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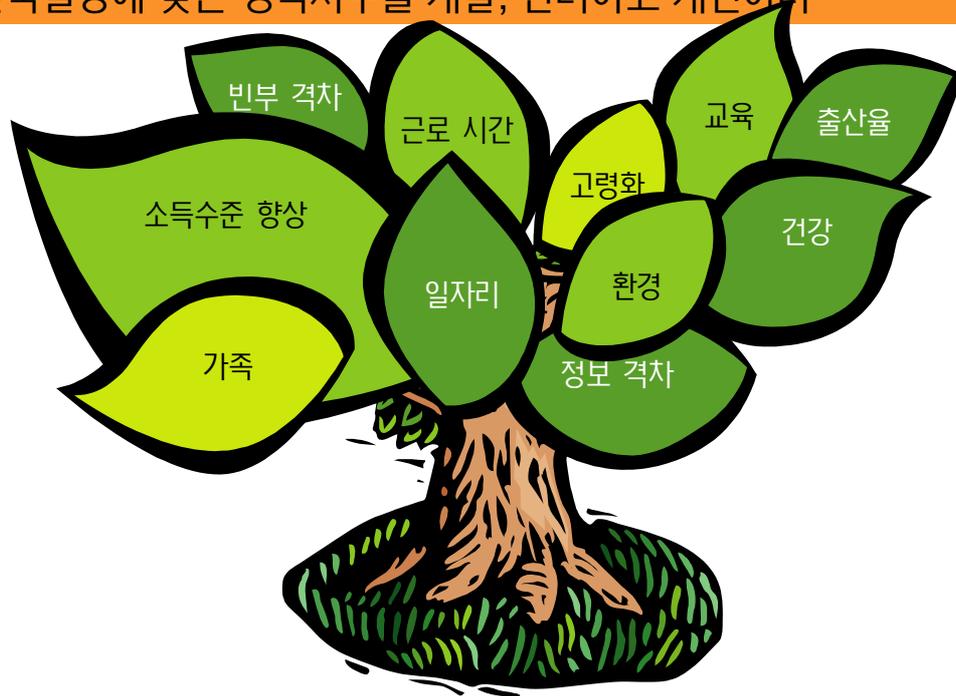


61

OECD는 한 발 더 나아가 GNH 즉, 국가행복지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GDP로 외형적인 발전은 측정할 수 있지만, 사회불안이나 환경 등 삶의 질의 핵심을 잡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OECD는 행복의 핵심 요소들을 종합 관리, 개선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GDP를 높여준다고 강조합니다. 이 자리에 GNH 지수 개발의 총 책임자인 엔리코 지오바니니 OECD 통계국장이 나와 계십니다. 지오바니니 국장을 모시겠습니다.

<연설 : 엔리코 지오바니니 OECD 통계국장 : 홈페이지 참조>
<http://future.sbs.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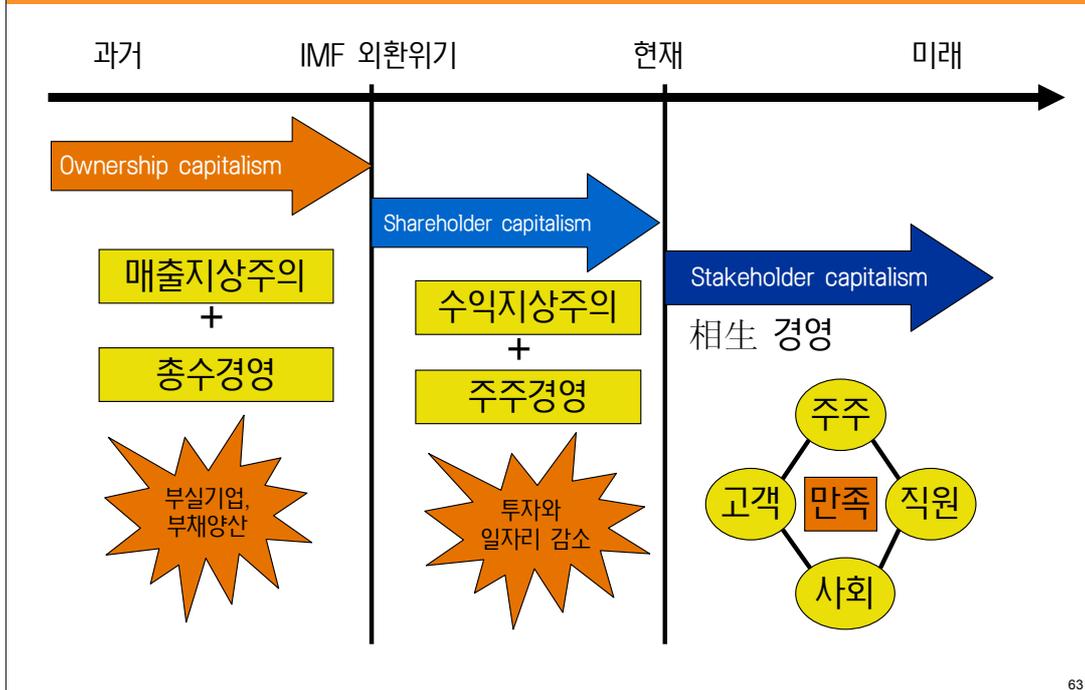
한국실정에 맞는 행복지수를 개발, 관리하고 개선하라



62

한국의 헌법에도 행복 추구권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행복 코리아를 위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SBS는 정부가 한국형 행복지수를 개발해
그 조사결과를 정책기준으로 삼을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행복지수에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중점 반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먼저, 생활수준의 향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가족, 일자리, 건강 등 행복의 3대 요소를
집중 점검해 주십시오. .
근로시간, 생산성, 출산율, 고령화 문제도 관리해 주십시오.
빈부격차, 정보격차, 교육과 환경의 개선도
행복지수에 잘 반영해 주십시오.

기업, 행복경영으로 패러다임 전환하라



IMF 외환위기 이전에는

매출 지상주의와 총수경영으로 상징되는 경제였습니다.

고도성장을 이끌어 냈지만 부실기업과 부채를 양산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에는

수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주주중심경영이 확산됐습니다.

수익이 개선된 반면 투자와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주는 물론 임직원, 고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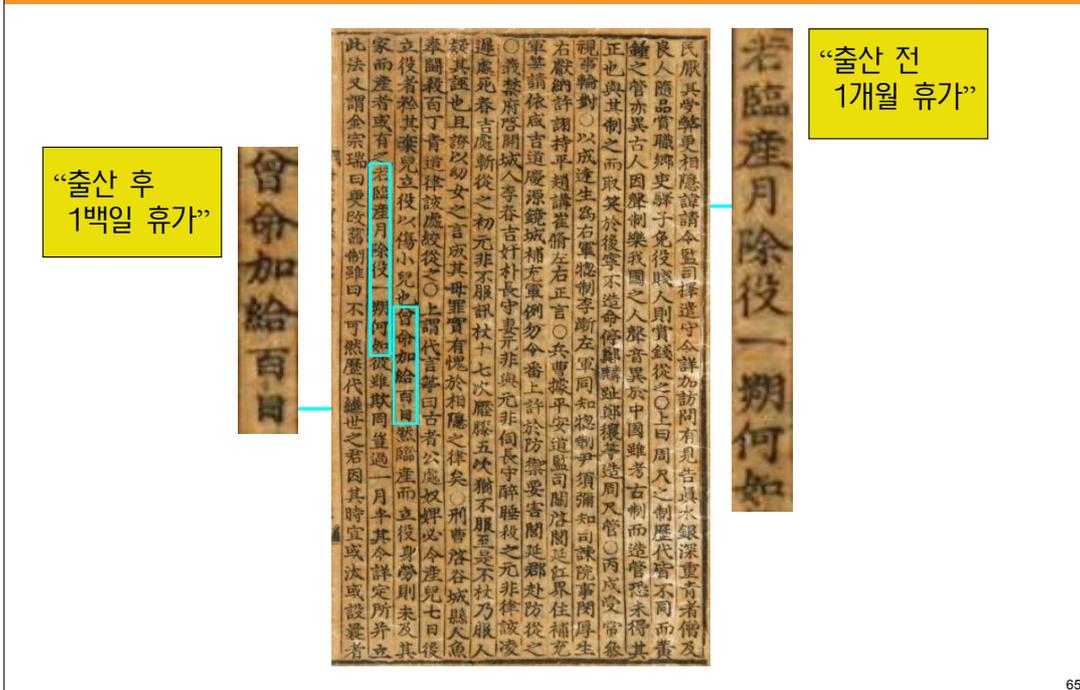
나아가 가족과 사회까지 만족시키는

상생의 행복경영에 나설 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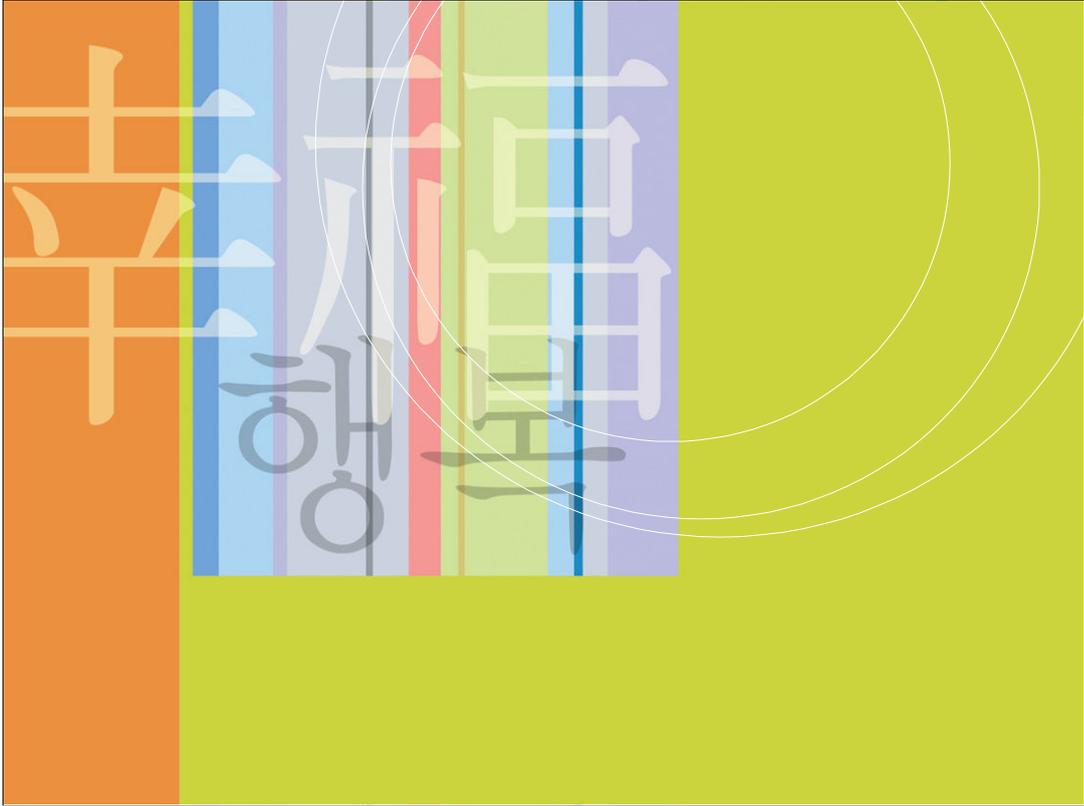


끝으로 행복을 이끄는 힘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긍정의 힘입니다.
성공해서 행복 한 것이 아니라 행복하면 성공한다고 합니다..
자력의 힘도 중요합니다.
스스로 노력하는 자에게 행복의 문이 열립니다.
나눔의 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가진 것과 상관없이 나눌 수록 행복해진다는 것이
많은 실험을 통해 입증되고 있습니다.

일류 행복국가 이끈 세종의 여민락(與民樂) 사상



600년 전 세종대왕은 관노비에게
 산전휴가 30일, 산후휴가 100일을 주고
 그 남편에게도 30일의 육아휴가를 줬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놀랄 만큼 앞선 가족친화정책입니다.
 모든 백성과 고락을 함께 한다는
 세종의 여민락 사상은 당시 조선을
 세계일류국가로 우뚝 서게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같은 행복의 DNA가 흐르고 있습니다.
 행복코리아로 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 신 호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김 용 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인터뷰

강신호 /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미래가 불확실해져서 행복감이 줄어들고 있죠.
정부와 기업은 합심하여 국민들의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그들이 보람을 느끼고 행복감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겠습니다.”

김용구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양극화가 너무 심화되니까 전체적인 평균을 따져봤을 때 그렇게 행복하다고 말할 순 없겠죠.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동반자적인 시각에서 이끌어줘야 양극화 현상도 해소할 수 있고,
또 우리나라 경제도 튼튼히 할 수 있는데 결국 중소기업 성장 없는 대기업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 하 진
여성가족부 장관

강 평

장 하 진 / 여성가족부 장관

「행복한 한국과 가족」을 이야기하는 뜻 깊은 자리를 만들고 초대해 주신

SBS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보고된 제4차 미래한국리포트는 우리의 생활에 드리워진 그늘과 행복의 현주소를 잘 보여주고 있으며, 행복의 제1조건은 바로 가족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족의 문제가 더 이상 가족만의 몫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점과, 그를 위한 10가지 제언은 가족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일 중심적인 사회’를 ‘행복 중심적 사회’로 전환시키고 가족에게 희망을 주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 가족 정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지에 대한 구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과 직장이 병존하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기업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이미 마련되어 있는 제도를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다음 장에 계속 

또한, 자녀의 출생과 육아의 기쁨을 남성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에게 출산휴가를 주고, 육아휴직의 일정 기간을 반드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정과 직장의 병존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족친화적 기업을 지원하는 법을 제정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족을 돌보는 일에 사회가 책임을 나누어지는 가족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과거에는 가족을 돌보는 일이 여성의 몫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사회 변화에 따라 이제는 여성 혼자만의 힘으로는 아이 양육, 노인 부양, 가족 간호 등 가족내 돌봄노동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가족을 돌보는 일을 지원하기 위해 보육의 공공성 확보, 가족 간호지원 등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홀로 방치되는 아동이 없도록 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전체 40%에 이르는 영·유아에 대한 지원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가족이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 재혼 가정, 이주결혼 가족 등에 대한 정서적,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우선,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빈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녀 양육비 지원을 현실화하고, 이혼시 자녀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행정적 토대를 마련하여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자녀를 직접 양육하기를 원하는 미혼 모부를 위한 주거 및 양육 환경을 제공하고, 위탁가족 및 입양가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제는 소득 수준이나 가족 규모, 국적에 관계없이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평등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경제적, 문화적 지원을 강화하여 다양한 가족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족 정책의 주요 방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어려운 시기마다 가족간의 단결과 단합된 이웃 사랑의 힘으로 고난을 헤쳐나와 지구촌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런 결속력을 바탕으로 내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가족들이 행복해지는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여성가족부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처럼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SBS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참석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오 갑 원
통계청장

강 평

오 갑 원 / 통계청장

1. 행복의 조건

-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행복해지려면 여러가지 조건이 구비되어야 하나, 조건만 갖추어 졌다고 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행복이란 개인의 주관성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국가는 모든 국민의 최대 행복을 위해 조건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건을 임의적으로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으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 필요조건 : 아무리 다른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삶의 기초 수단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부와 소득은 필요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충분조건 : ① 본인과 가족이 건강하고, 가족 구성원간에 화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② 일터가 있고, 근로를 통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③ 자기와 관련이 있는 친구, 종교, 사회단체 등과의 교류, 협력은 물론 여가를 즐기는 각종 사회, 문화 활동도 중요한 조건입니다.
- 통계청은 충분 조건을 중심으로 국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어떤 통계와 지표를 검토해 나갈 것인가를 설명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계속 

2. 행복의 조건 충족을 위한 지표 개발

- ① 가족의 건강과 화목을 위해서는 아동복지, 노인건강, 의료비 문제, 정기검진 여부, 아동의 시간대별 보육 시설, 불안, 스트레스 등 정신 건강과 가족형태와 관련한 미혼모 가구 현황, 편부모 가정의 애로사항 및 양육 실태, 재혼가구 현황, 국제결혼 자녀 교육 및 생활 환경 등에 관한 상세하고 피부에 와닿는 통계 개발을 검토 하겠습니다.
- ② 일터 및 근로 만족감과 관련하여서는 일터의 환경 여건, 교육 기회의 균등, 교육 내용과 직업의 연계성, 연간 이직 회수, 이직 사유 등과 노동의 질, 직업상의 스트레스, 정년 보장 등을 통계화 해나가겠습니다.
- ③ 사회 생활 측면에서는 근무시간 이후의 취미 활동, 문화비 지출 비중과 구조 변화, 사회 활동의 종류와 투입 시간 등 well-being 시대에 국민 생활의 모습 변화를 알 수 있는 각종 통계를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3. 맺음말

행복은 가진 것에 비례하지 않고, 또한 조건을 구비했다고 달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감은 주관적이고 개인간, 국가간, 비교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제4차 미래한국리포트에서 논의된 바와 같은 행복지수의 산출이나 행복 계정의 작성 등은 국민 전체의 행복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법률적 장치 마련을 위하여 매우 필요한 일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 통계청은 OECD 등의 연구, 개발 작업에 적극 참여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SBS 프로젝트팀

서 두 원	부장
김 상 협	차장
이 정 애	기자
조 미 호	PD
한 주 한	기자
송 인 호	기자 (이상 미래부)
최 선 호	기자 (경제부)
김 호 선	기자 (사회부)
박 세 진	연구원
이 은 영	AD
김 혜 리	연구원
박 현 정	작가
박 지 현	인턴
정 지 윤	행정
김 소 원	8뉴스 앵커

연사

- 엔리코 지오반니니(Enrico Giovanni)
- OECD 통계국장
- 앨런 칼슨(Allan Carlson)
- 세계가족회의 의장
- 장하진
- 여성가족부 장관
- 오갑원
- 통계청장

자문위원 및 도움주신 분들

어 수 영	이화여대 명예교수(자문위원장)
조 성 남	이화여대 교수
에 드 디 너	미국 일리노이대 교수
로널드 잉글하트	미국 미시간대 교수
권 오 규	주 OECD 대사
진 기 남	연세대 교수
최 인 철	서울대 교수
서 은 국	연세대 교수
조 원 동	재경경제부 경제정책국장
조 영 탁	휴넷 대표
조 하 연	McKinsey & Company 비주얼 담당

여성가족부

양 승 주	가족정책국장
조 성 은	홍보관리관
손 애 리	가족정책팀장
이 금 순	정책홍보팀 언론지원

Are You Happy?



158-051 서울시 양천구 목동 920번지 **SBS** 보도본부 미래부
TEL 02-2113-4232 / FAX 02-2113-4238
www.sbs.co.kr
<http://future.sbs.co.kr>

, (, OECD)

, .

가 . 가

, 가 .
(GDP) 가 .
GDP가 ?
GDP 가 , GDP가
가 .

가 .
가 , ' , ,
가 .
가 .
가 .
가 가
가

. 가 ,
,
OECD ,
가 가 , 가
OECD 가

OECD 가

-

()
가

-

가

-

가

-

가

가

가

-

가

가

가

- GDP

-

(, ,)

-

가

(GDP)

가

OECD

가

OECD ‘ , 가

가

. 2004 11 < , ,

>

1 OECD

가

OECD

- 1 1,000 가

- (NGO) 'The Fatherhood Initiative()'가 가

- 'The Marriage Initiative()'가 가

- 2 가

- ? 20 가 17% 1 2.04 가

- 가 가 가

- 가 가

- 가

- 가

